해빙기 맞아 장막 걷혀야 할 軍

기획특집 한국의 軍—군에 대한 일반적 고찰〈1〉

〈 글 싣는 순서 〉

1. 한국군에 대한 일반적 고찰
2. 군비통제 가능성과 실현방도
3. 군 민주화·중립화를 위한 노력
4. 적극적인 군 생활을 위해

Ⅰ. 서론

백만의 대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 땅에서 군문제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지대하다. 그러나 한국에서 군대에 관한 사항은 모조리 '군사기밀'로 취급되어 군대에 대한 비판논리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정부예산의 가장 많은 부분을 군대가 소비하고(예산의 30%), 20대 초반의 청년 중 71%가 군에 입대하며,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방대한 예비군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군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국민적 관심 자체가 봉쇄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한심하고도 기이한 일이다.

그러나 평화 군축의 전세계적인 선풍이 한반도에도 불어와 냉전시대 분단의 물리력으로 기능해왔던 한국군에 대한 일대 수술이 불가피해져 가고 있다. 최근 우리사회 내에도 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구축론자, 평화운동가들이, 서서히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 지금, 한국군은 동맥경화증에 걸린 자신의 처부를 더욱 갑출 수 만도 없게 되었다. 이러한 격관적 조건하에서 한국군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비판은, 분단군대를 통일군대로, 예속군대를 민족군대로 전환시켜 나가는 평화와 통일운동의 기초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한국군에 대한 접근을 세가지 방로를 통해 수행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한국군의 정치·군사적 성격을 결정지은 역사적 계기는 무엇이었는가? 둘째, 한국군이라는 방대한 병력은 어떤 무기로 무장되어 있으며, 그 무기의 조달방법은 무엇인가? 세째, 한국군이라는 물리력을 궁극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정치세력은 누구이며,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국군이 기능하고 있는가? 라는 점이다. 한국군 형성의 역사적 기원, 무기체계, 군사력의 소유관계(군사관계)라는 세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군의 윤곽을 그려보기로 한다.

Ⅱ. 본론

1944년 일본 국왕 치평으로 선포된 '조선인 총동원령'은 조선의 청년들을 강제 징용·징병하고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전쟁에 동원하는 전시동원령이었다. 이때 처음으로 조선에서는 징병제가 실시되었는데, 징병된 조선인은 천군과 비롯한 무력가 있는 이유로 일본인 보다 선의 청년들을 강제 징용·징병하고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전쟁에 동원하는 전시동원령이었다. 이때 처음으로 조선에서는 징병제가 실시되었는데, 징병된 조선인은 천군과 비롯한 무력가 있는 이유로 일본인 보다 미국의 군사기지로 전락되고, 작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는 전시접수국지원협정(WHNS)을 체결하여 한국군은 일말의 군사주권도 갖지 못한 채 식민지 종속군대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국민의 명령이 아닌 리스카시 한미연합사령관의 명령에 따라야 하고 미군의 감시를 벗어나서는 개미새끼 한마리 움직일 수 없는 한국군은 분단과 예속의 볼리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미군이 버리고 간 칼빈 소총으로 기초적인 무장을 시작한 한국군은 70년대 박정희 장군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에 힘입어 '율곡사업'이라는 전력증강을 시도한다. 이로인해 소화기와 병참장비의 자체조달이 가능해 졌으며 70만의 상비군과 4백만의 예비군을 자체 무장시킬 수 있게 되었다. 80년대 이후 5공과 6공을 거치면서 한국군의 무장수준은 외국에서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하는 형태로 탱크, 화포, 전투기, 미사일의 일부까지 조달함으로써 50년대식의 재래식 전쟁은 자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조기경보기(AWACS), 대잠초계함, 차세대 전투기와 헬기, 구축함등 첨단무기 중심의 전력증강 정책이 소나기 식으로 발표되고 있다. 국방연구원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첨단무기 군비확장은 90년부터 2006년까지 총71조6천억원이치의 무기를 도입해야 하는 사상 초유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군은 작년에만도 미국 무기 수입 1위국(18억불어치)의 불명예를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력증강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군사기술 중핵심적인 정보·통신, 첨단무기 기술등은 결코 이전하지 않고, 다만 미국 내에서는 이미 사양화 되기 시작한 전투기, 함정등의 조립기술과 완제품만을 비싼 값에 팔아왔고 있다. 그결과 한국군이 막대한 군비를 지출하여 수행되는 전력증강책이 '자주국방'을 위한 것이라기 보단 군사에서의 대미예속만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군사기술과 무기체계에 있어서의 대미예속은 한국군의 정치적 예속성의 물적토대를 이루고 있다.

◆평화 군축의 세계적 선풍으로 한국군의 일대 수술이 불가피해졌다

분단상황·대미예속 심화로 경직화
예산·인원면 거대조직-개편 불가피

더한 통제와 엄격한 동등이 군을 이 적용되었다. 이 때 사병을 통제한는 중세기적 인권유린의 통제방법이 해방 이후 미군정 하에서 한국군의 내적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게 된다. 1947년 국방경비대의 출범으로 한국군은 치안군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는데, 이 당시 대거 등용된 장교들은 80%이상이 과거 일본군 출신의 장교들로서 이들은 일본군 특유의 '관조'로 무장된 군국주의 장교들이었다. 오늘날까지 군대가 권위주의의 온상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배경에는 식민지 군사문화의 미청산이라는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군사용어나 법률에서까지 과거 일제시대의 것을 그대로 물려받고 있는 한국군은 분단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급속도로 미국화 된다.

한국전쟁 중 한국군 작전지휘권이 미국에 이양되었으며,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한국이 따라서 독자적 군사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채 양만 비대해 진 한국군은 그 군사전략에 있어서도 재래식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군은 다병주의를 기초로하여 50년대식 '선방어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어, 청년들을 마구잡이로 군대로 끌어가 단순한 노동에 장기간 복무시키고 있다. 한국군은 질보다는 '양'적인 개념으로 국민총무장의 수준을 높이려 하고 있다.

한국의 주요무기가 재래전 수행에 적합한 전투기, 탱크, 화포, 유도미사일등 공격형의 무기임에 따라 국내 방위산업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범위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군수산업체는 80개가 공장에 전담여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 범위는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결국 한국사회 내에서도 '경제의 군사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떨쳐 버리기 어렵다.

한국군이라는 물리력을 장악하고 있는 계급과 정치세력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는 한국현대사에서 여실히 보여주는 군의 정치개입으로부터 설명된다. 80년 광주항쟁과 12·12군사쿠데타등 군내 소수에 불과했던 장교집단이 정상적인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전군과 국가권력까지 장악해 나가는 과정은 한국군이 과연 민간정부와 국민 소유의 물리력이 아닌 을 입증하고 있다. 5·16, 12·12사태가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미국은 그들의 정보망을 통해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으며, 주한 미군과 CIA요원들에 의해 주태타 가 지도되었다. 또한 미군은 한반도 전쟁수행에 필요한 5개의 전쟁프로그램(군수지원, 병력운용등)을 갖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가동시킬 블랙박스의 열쇠는 미국대통령이 갖고 있다. 여기에서 한국군은 미군의 전쟁수행을 보조하는 '지원군'으로서의 성격을 벗어날 수 없다.

반면에 한국민은 군대에 관해 어떤 알권리도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정부기관이 감사원이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도 국방관계는 아직 성역으로 받아 인식되지 않고 있다. 계엄령은 국회동의 없이 대통령에 의해 일방적으로 선포될 수 있고, '국가비상시'라는 명분으로는 군에 의한 민중탄압이 얼마든지 자행될 수 있다. 조국의 무고한 아들들이 입대한 군대가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는 전쟁에 동원될 수 밖에 없음은 한국군이라는 물리력이 과연 누구의 소유인가를 알 수 있게 한다.

매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와 한미합동 군사훈련, 또는 군사연습을 통해 한·미간에는 연합작전능력을 점검한다. 여기에서도 한미 연합사령부 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이며, 미국의 국동군 사령관이 역임하고 있고, 미군은 핵무기와 해·공군 위주의 정보·통신·기동력을 장악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군은 육전에서의 종속만이 보병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Ⅱ. 결론

아직껏 한국군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 한국군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최근 군 정보기관에 의한 군의 선거개입과 의문사 사건의 진상, 군의 부정부패등이 양심적인 군인들에 의해 속속 밝혀지고 있는 마당에서 동맥경화증에 걸려 있는 한국군에 대한 대폭적인 수술을 국민의 힘으로 수행할 때가 되었다. 이러한 국민운동은 크게 반전반핵 평화운동과 군의 자주화, 민주화운동으로 표출될 수 있다. 시민지 예속성원의 최후보루인 군대에 대한 군대내부의 자주화운동의 등학은 군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근로청년과 학생, 2백50만동원예비군, 그리고 양심적인 군인들이다. 이러한 운동이 대중화될 때, 조국통일과 민주정부수립의 전망은 한층 구체화 된다고 하겠다.

김 종 대
〈반핵평화운동연합 정책연구원〉

ABC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Ⅰ. 머리말

ABC란 Audit Bureau of Circulations(신문, 잡지 부수공사기구)의 약자로서, 신문 잡지 발행사가 자진해서 보고한 자사 간행물의 부수에 대한 정보를 표준화된 기준위에서 객관적인 방법으로 조사, 검토하여 그 사실을 가입 회원사에게 알려주는 기구를 말한다.

1914년 미국에서 ABC기구가 최초로 창립한 이후 1920년대와 1930년대 신진 각국으로 확산된 ABC제도는 1991년 현재 한국을 포함, 24개국에 26개의 ABC기구가 설립되어 자국 상황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

각국의 ABC제도는 공시방식에 따라 크게 영국형과 미국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제도가 일찍부터 발달된 영국 및 그 연합국가에서는 발행사가 위촉한 공인회계사가 ABC규정에 따라 부수공사를 실시하며, ABC는 이들이 공사를 통해 작성, 시인한 보고서를 접수 검토, 인증한 ABC 보고서로 발행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미국과 일본 등은 ABC기구 내에 자체 공사원을 두어 부수공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미국형 공사방식을 택하고 있다.

ABC에서 나오는 부수자료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크게 보면, 발행사가 ABC에 보고한 부수정보를 수정없이 그대로 편집하여 발간하는 발행사보고서(PUBLISHER'S STATEMENT)와 ABC가 공사한 결과를 정리하여 발간하는 공사보고서(AUDIT REPORT)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한 외이로 ABC의 부수자료는 공사보고서를 지칭하나, 발행사보고서를 발간하는 이유는 발행사측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부수보고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고 있다.

Ⅱ. ABC제도의 필요성

인쇄매체의 부수는 발행사의 주재원인 판매 및 광고수입과 깊은 상관을 가지며, 인쇄매체 광고비(91년 1조원 규모)의 집행근거가 된다. 따라서 부수에 대한 정보는 발행사, 광고주, 광고회사의 경영 및 광고의 과학화, 합리화를 위한 기본 자료로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ABC제도는 발행사나 광고주, 광고회사에게는 직접적인 요구가 되고 있으며, 이에 부가하여 각국의 사회환경에 따라 특별한 사회적 의미를 부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ABC제도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ABC제도는 광고주, 광고회사 및 발행사 사이의 관계를 원활히 유지시켜주며, 이들 사이에서 발행할 수 있는 무질서와 불합리성 등을 제거하여 합리적인 질서를 구축케 한다.

둘째, ABC제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광고요금을 책정하는데 필요한 기본자료를 제공하여, 발행사에게는 건실한 경영의 기반이 되는 광고수입을 보장하고, 광고주 및 광고회사에게는 광고투자를 합리적으로 하도록 한다.

세째, ABC제도는 광고주 및 광고회사가 매체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필요한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ABC의 부수자료를 기초로 광고의 도달률, 도달횟수 등을 고려한 매체목표를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고, ABC의 부수자료를 기초로 책정된 매체의 재관한 광고요금을 기준으로 적절한 매체예산을 짤 수 있어, 최소 광고비로 최대 광고효과를 볼 수 있는 효율적인 매체계획을 세울 수 있다.

합리적 광고료 책정의 저울
언론민주화·독자서비스 증대에 기여

네째, ABC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공기(公器)로서 역할하는 언론이 그 자신의 중요정보인 부수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힘으로써 언론의 대국민 신뢰성을 제고하게 하며, 또한 발행사에게 경영합리화에 필요한 경영정보자료를 제공하여 준다.

다섯째, ABC제도는 매체의 차별화를 유도하여 일반국민에게 매체의 선택범위를 넓혀준다. 간행물의 부수양은 그 질과 별개의 문제로써 광고단가와도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 이는 간행물의 특성과 독자층에 따른 결과이며 따라서 ABC의 부수자료가 나오면 이에 근거한 주독자층을 대상으로 간행물이 차별화 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매체가 차별화되면 그만큼 일반국민의 매체 선택폭은 넓어질 것이다.

여섯째, ABC제도는 언론의 대독자 서비스를 더욱 증진시키는데 기여한다. ABC에 의한 부수내역의 공개는 무료부수를 통한 발행사간의 무리한 확장경쟁을 지양케 함으로써 합리적인 판매제도를 구축케 하며, 합리적인 판매제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전한 판매경쟁은 독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일곱째, ABC제도는 언론의 민주화에 도움을 준다. 언론의 민주화란 언론이 정부의 통제나 광고주의 통제, 그리고 집단적 압력으로 부터 벗어나 독립적인 편집권과 경영권을 가지면서 언론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을 의미한다. ABC의 부수자료는, 발행사에게는 정당한 광고요금을 요구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하여 광고주의 공제를 받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집단적 압력을 거부케 하며, 또한 광고주에게는 발행사의 광고지면을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언론민주화에 기여한다.

Ⅲ. 한국의 ABC

1960년대부터 대두했던 ABC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 후반에 구체적인 활동으로 나타났다. 6·29선언이후 엄청나게 간행물의 수가 증가한 언론계와, 연간 광고비가 1조원(88년 기준)을 넘어선 광고계에서 ABC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각계의 ABC 태동을 위한 분위기 속에서 1988년에 언론계, 광고계, 학계, 정부측 인사로 ABC소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ABC소위원회를 주축으로 창립준비가 이루어져, 1989년 5월 31일 한국ABC협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중앙일간지 전부와 대부분의 지방 유력지가 가입, 92년 9월 현재 107개 회원(신문26개, 잡지 20개지, 광고주 36개사, 광고회사 19개사, 기타 6개사)으로 구성된 한국ABC협회는 공익자금 지원 및 회원사 회비로, ABC제도의 효용을 최대한 높이면서도 부수공개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정착 환경조성에 노력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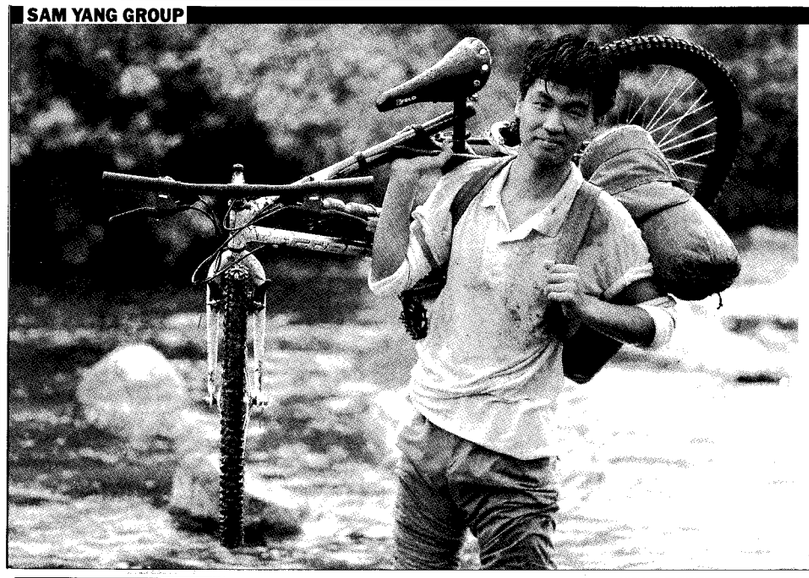
Ⅳ. 맺음말

ABC공사는 일반 사회조사나 구독실태조사와는 달리 조사대상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사가능한 언론구조의 확립이 전제되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발행사의 확고한 부수공개의지가 필요하며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광고계 및 사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고 있다.

ABC제도 정착에 따른 파급효용은 단순한 광고의 과학화와 합리화를 도모하는 것 이상으로 사회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ABC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ABC구성체인 발행사, 광고주, 광고회사가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

김 정 한
〈ABC협회 조사연구부〉

SAM YANG GROUP



깨끗한 환경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젊음을 과시하자는 건 아니다.
치기어린 낭만은 더더욱 아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안간힘을 다해 봄으로써
나의 모든 가능성에 부딪쳐 볼 뿐이다.

한계에 도전하는 의지, 행동하는 젊음—
삼양그룹은 이런 젊은이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개척자 정신
이것이 바로 삼양그룹이 지난 70여년간
변함없이 지켜온 기업정신입니다.
1924년 이 땅에 산업의 씨앗을 뿌린 이후 식품,
식품, 사료, 기계, 화학 부문에서 기술의 문을 연
삼양의 개척정신은 금융, 유통, 환경사업, 정보산업에
이어 이제 새롭게 고분자, 의료용 소재 및 제약,
발효공업 등 첨단 산업에 도전합니다.
젊은이들의 뜨거운 가슴, 진지한 눈빛 속에 내일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들의 진취적인 기상처럼 삼양그룹은 풍요로운
내일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삼 양

●주식회사삼양사 ●제일제당 ●삼양화학 ●삼양유지주식회사 ●선일포도당주식회사 ●삼양사상사주식회사 ●삼양제약주식회사 ●삼양제분주식회사 ●삼양사료주식회사 ●대한삼양파이어 ●전북투자금융주식회사 ●주식회사삼양데이터 ●삼양종합연구소 ●삼양회 ●주식회사혜화